

이재명 "IRA 개정-유예 논의 요청"...한국계 美 의원들에서한

李 "IRA법, 한미 FTA·WTO 원칙에 부합 안 해" "한미동맹 70주년...IRA·안보 위기 함께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계 미 하원의원들에게 재차 서한을 보냈다.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간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 미셸 스티, 메릴린 스트리랜드, 앤디 김 네 분 하원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며 지난달 28일 발송한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재선 의원이 되신 영 김 의원을 비롯해 네 분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모두가 연임되는 쾌거를 올렸다. 美 정계의 코리아파워를 보여주셨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경제안보기술통맹으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한국

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IRA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미국산을 국내산 전기자동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IRA의 세제지원 차별 조항은 내국인 대우 원칙 등을 담은 한미 FTA와 WTO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약화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의도 줄어

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9월1일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차별을 우려하며 세제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안보동맹으로 격상한 한미관계의 발전과 양 국민의 신뢰는 지속돼야 한다"며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법 적용 유예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밖에 한반도 안보 상황을 두고는 "북한이 ICBM 등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대화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미중 경쟁 사이에서 한국은 외교적, 경제적 시험대에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은 물론 중국도 추구하는 동북아시아 정책"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서한을 공개하며 "내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이다. 위기 앞에서도 함께 걷는 것이 동맹"이라며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신뢰가 있기에 함께 머리를



맞다면 IRA 법안을 둘러싼 위기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월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도

IRA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단도 이날 IRA 우려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최이슬기자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계획 유효"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각각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향후 최종 문책 논의 과정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재까지 입장 변화는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을 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와 관련한 질의가 많이 들어와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문책 방안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며 "발의된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8일 본회의 이전(6일 또는 7일)에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장관의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여러 가능성이 있으나 오늘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 대한 답변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8.9일 이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8.9일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오늘 오후 4시 정책위 의장과 간사(들이 회동한다). 오늘까지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정무적 감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원래 예산 처리하고 국정조사하고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국정조사 전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하면 예산이 영향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재환기자

국회 대표단, '한국산 전기차 차별' IRA 논의 차 방미

정부·국회 대표단, 美 의원 면담 계획



국회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4일 미국으로 떠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대표단은 5일~9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국회 대표단은 윤 위원장과 산자위 야당 간

사인 김한정 의원, 산자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들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등 미 의회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

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표단은 동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해,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의원의 외교의 필요성을 국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방안을 통해 동맹인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의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